

# “대로변 비싼 건물보다 노후주택 리노베이션이 유망”

## 인터뷰

에이원리얼트루 김도윤 대표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상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떠올린다. 하지만 최근 관심을 받는 부문이 바로 노후주택 리노베이션(리모델링)이다. 부동산 리노베이션은 빈 땅에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부동산컨설팅 에이원리얼트루 김도윤 대표는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것이 최근 부동산의 핫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로 변에 번듯하고 임대수익이 많은 물건은 가격이 싸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알짜 투자를 위해선 기존의 상가건물보다 노후주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리모델링은 단지 용도를 바꾸고 오래된 것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기존에 없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 이태원동 소재의 에이원리얼트루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비롯해 노후화된 여러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한 부동산 개발자다.

그는 부동산업계의 변화에 대해 “이제 부동산은 단순히 매물을 사고파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 가능성을 보는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고객들도 매입 이후 단기간 내에 팔아 차익을 거두는 이익보다 지속적인 수익과 장기적인 플랜으로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선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에이원리얼트루&퍼시픽 사무실에서 ‘프리젠퀄리티’와 동빙고동 리노베이션 사례에 대해 설명 중인 김도윤 대표.

“기존에 없던 새 가치를 불어넣는 ‘리모델링’ 배산임수·조망권·도심 접근성 등도 살펴야 용산 한남동, 강남 못지않은 부동산 블루칩

했다. 에이원리얼트루의 박 경희 이사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아는 컨설턴트회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익형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일주일, 한 달 만에 성사되는 일이 없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고객과 소통한다”며 “매물이 속한 지역에 대한 역사를 비롯해 매입 이후의 정확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도 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위치는 기본이고 주변의 개발 호재 유무 그리고 배산임수, 조망권, 도심 접근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해당매물

주변의 거래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 대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용산구 동빙고동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용산구 한남동을 강남 못지않은 블루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중 노른자위 땅인 동빙고동은 대사관거리, 조용한 고급주택가라는 프리미엄 입지와 더불어 땅값 상승의 호재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강변을 끼고 있어 조망권도 뛰어나고 반포대교를 이용해 강남권 접근성도 높다. 게다가 신분당선 연장선이 될 동빙고역 호재까지. 향후 용산민족공원과 유엔사, 수송부 부지가 개발되면 이 구역의 가치는 더 올라갈 전망이다.



에이원리얼트루가 진행한 노후 주택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전(아래)과 리모델링 이후.

최근에는 신축개발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김 대표가 분양권을 맡고 있는 ‘프리젠퀄리티’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프리젠퀄리티는 조용한 주거환경과 보안을 자랑하는 고급빌라로 소형가족원과 신혼에게 안성맞춤인 주거지로 인기몰이 중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수익형부동산의 투자열기에 한 몫 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사진=유재희 인턴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안정성 담보되는 우량종목 제시)

코드번호	종목명	설립연도	시가총액 (십억원)	PRR (배)	PER (배)	매출액			영업이익		
						2016	2017E	YoY	2016	2017E	YoY
004970, KS	신라교역	1967	250.4	0.5	9.4	304.7	413.1	35.6%	5.9	29.4	399.6%
005430, KS	한국공항	1968	155.9	0.5	6.7	472.6	485.4	2.7%	26.8	27.0	0.8%
002600, KS	조흥	1959	138.0	1.2	12.0	129.7	162.1	25.0%	11.5	14.8	28.2%
005160, KQ	동국산업	1967	226.1	0.6	6.7	754.9	806.5	6.8%	50.5	50.8	0.5%
052330, KQ	코텍	1987	214.9	0.6	9.5	298.0	327.5	9.9%	29.3	33.4	14.2%
005710, KQ	대원산업	1968	169.9	0.8	5.0	823.6	849.3	3.1%	40.5	42.3	4.4%

### 풍부한 현금자산·‘흑자’ 실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 변동성 장세 속 ‘뿌리깊은 거목’ 빛 본다

### 株라쿨라의 종목 중소형 가치주 6종목

당분간 글로벌 증시 요동 예상 흑자기조 유지 업체기준 필터링

“비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목 처럼 수많은 풍파에도 내실을 다져 온 종목이 빛을 볼 시기가.”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당분간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 가치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코스피지수가 이달 들어 7.9% 내렸고, 코스닥 지수도 7.88%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며 “앞으로 이같은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몇 가지 조건을 통해 향후 변동성 장세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가치주 6종목을 선별했다.

첫 번째 조건은 풍부한 현금성 자산이다. 최 연구원은 유동비율이 150% 이상이고,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2배 이하인 업체에 주목했다. 두 번째 조건은 역시 실적이다. PER(주가수익비율)이 12배 이하이며, 3년 연속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 역시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필터링했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기준으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는 6종목을 투자 유망종목으로 제시했다. 코스피 상장 업체로는 신라교역과 한국공항, 조흥이 꼽혔다. 먼저 신라교역은 세계 1위 참치 선망기업으로 원양어업 외에도 수산물유통과 철강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신라교역의 2017년 말 기준 예상되는 현금성자산은 1650억원으로 현 시가총액의 65%에 달한다. 한국공항은 항공운수보조용역을 주 사업으로 한다. 역시 2017년 현금성자산이 890억원(시총의 55%)으로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갖췄다. 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사업을 영위하

는 오투기의 계열사인 ‘조흥’ 역시 추천 종목에 올랐다. 최 연구원은 “외식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국산업과 코텍, 대원산업이 꼽혔다. 동국산업은 자회사 동국S&C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건설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현 시가총액(2262억원) 대비 현금성자산(1200억원)은 절반 이상이다. 코텍은 카지노용 모니터와 전자철관 사업을 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 신규 수요의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트 제작과 판매업을 하고 있는 대원산업은 자동차 산업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비 4.4% 오른 42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고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란 분석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주식형 펀드 수익률 일제히 ‘마이너스’

### 주간펀드동향

美 금리 급등... 美·유럽 증시 하락 탓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주(2월2일~2월8일)간 코스피지수는 미국재 금리 급등의 여파로 미·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아 전주 대비 6.27% 하락한 2407.62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기관은 1조302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이에 국내주식형 펀드는 모든 유형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주식 코스피200이 -6.46%의 수익률로 가장 부진했다. 전체 수익률은 -6.29%를 기록했다. 이에 펀드 순자산은 코스피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인 탓에 전주 대비 2조5520억원 줄어 들었다.

그간 강세를 보였던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5.33%라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중화권(-6.83%)과 중국(-6.72%)이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 일본(-6.38%) 역시 크게 하락했다. 한편 중동아프리카 펀드는 동일 기간 -1.8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 펀드 중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전반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순자산은 전주 대비 1조2810억원 줄었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 펀드는 모두 마이너스 성과를 보인 가운데 액티브주식매당 유형인 ‘한국밸류10년투자매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3’가 -2.88%의 수익률을 보이며 한주간 가장 낙폭이 적었던 펀드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신흥유럽주식으로 분류되는 ‘키움러시아익스플로러증권투자신탁1[주식]C5’가 -1.87%의 수익률로 하락장 속 가장 선방한 펀드로 나타났다. /손영지 기자

### 건보공단 서울본부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사회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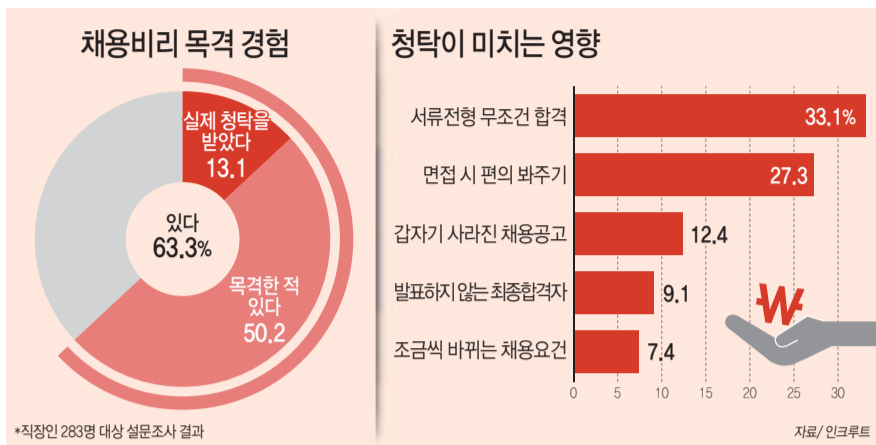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8~9일 양일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의료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8일 강원도 소재 평창 마울회관에서 지역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이날 참여한 서울 보건의료상생협의체 소속 의료진(안과·한외과·이비인후과·약제과·간호과 등)과 시민단체, 공단의

건이강이 봉사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약품 등)은 마을 주민에게 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인 9일엔 서울지역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40여명에게 올림픽 경기장 부대시설인 대관령 눈꽃축제와 강릉 실내경기장 주변 테마 관광 등 관람에 필요한 식대,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면접 전 이름 알려주고 시험문제 유출까지 직장인 절반 “채용비리 목격”

**인크루트 직장인 대상 설문**  
40% “청탁, 무조건적인 지시”  
대가로는 업무상 편의·금전 순



공공기관과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직장인 중 절반이 채용비리를 목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인사청탁 특혜채용 등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3.1%는 '실제로 청탁을 받아 보았다'고 답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채용비리를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탁 형태로는 '무조건적인 지시'가 39.7%로 가장 많았고, '청탁대가 제시'(25.2%), '회유, 협박'(18.5%)이 각각 2, 3위에 올라 청탁과정의 상당 부분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29.6%가 '업무상 도움 및 편의제공'을 꼽았다. 뒤이어 '금전, 선물'(25.9%), '식사대접 등 접대'(24.7%), '돈독한 관계유지'(18.5%) 등의 답변이 나와, 청탁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가 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기타 답변을 통해 인사청탁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 사례로는 '부탁으로 시작된 지시', '공개채용을 가장한 찌기 채용', '다른 그룹사 직원 아들 채용', '면접전 대상

자의 이름 알려주기', '시험문제 유출', '지인추천제도' 등 다양한 형태가 나왔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채용비리 소식이 들려올 때 마다 구직자들이 갖는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기업성격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범위 내 ±7.26%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설 연휴, 서울 주차할 곳 없다면 초중고 학교에 무료 주차하세요

## 서울시교육청 406곳 나흘간 개방

서울 시민 또는 귀성객은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의 주차 개방 여부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차 문의는 해당 학교로 하면 된다.

설 연휴인 오는 15일~18일까지 나흘간 서울 시내 학교 406곳의 운동장이나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를 맞아 서울 시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전역의 공·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 주차 시설로 개방하는데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학교는 모두 1296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명절연휴 기간 중에도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차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어디로 유학 갈까?’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계속된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장에서 유학 희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동아에스티, R&D 강자로 부상... ‘글로벌헬스케어 플레이어’

국내 제약기업 중 신약 보유 1위  
작년 3분기까지 R&D에 606억

(동아에스티 국산 신약 개발 현황)

구분	등록연도	제품명	적응증
국산 신약 10호	2005년	자이데나	발기부전 치료제
국산 신약 24호	2015년	시백 스트로 정	항생제
국산 신약 25호	2015년	시백 스트로 주	항생제
국산 신약 26호	2015년	슈가는	당뇨병 치료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ST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R&D) 역량과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제약회사로 평가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국산 신약 29개 중 4개를 개발해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동아ST는 2018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개발 첫 소식은 제약 선진국인 미국에서 알려졌다. 동아ST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영국 제약바이오기업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항암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ST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구 중인 3가지 면역항암제 타겟에 대한 선도물질 및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물질 탐색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모든 지적 재산과 특허는 공동 소유한다.  
이어 동아ST는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와 당뇨병성신경병증치료제 천연물 의약품 'DA-9801'과 퇴행성신경질환 치료제 'DA-9803'에 대해서 각각 라이선스 아웃 및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DA-9801 라이선스 아웃 계약으로 동아ST는 계약금 200만달러(약 22억원)와 뉴로보 지분 5%를 수령하게 된다. 이후 임상 단계별 성공에 따른 마일스톤(임상 개발 단계별 기술료)으로 최대 1억7800만달러(약 1942억원), 상업화 이후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된다. 또한 DA-9803 양도 계약에 따라 양도금 500만달러(약 54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총 계약규모는 1억8500만달러(약 2018억원)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DA-3880은 아라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다. 만성신부전 환자 및 항암 화학요법 환자들의 빈혈치료제로 쓰인다. 동아ST는 유럽 임상1상

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임상1상 결과에서 아라네스프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입증해 성공적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2016년 동아에스티 R&D비용은 2015년 596억 원과 비교해 21.8% 늘어난 726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매출대비 13%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에만 606억원을 R&D에 투자해 연구개발비율이 14.8%까지 올랐다.  
지난해 동아ST는 단기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R&D관련 조직 및 의사 결정 체계를 재편했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 농식품부 설 전후 전국 소독·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과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인 이달 12일과 19일에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청소와 소독은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동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

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귀성객과 여행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정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실시한다.  
국도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시설의 전광판에 홍보문자를 게시하고 국제 공항만에는 AI·구제역 발생국가 및 해외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저소득가구에 설 위문품·교복비 등 64억 지원

## 서울시 연휴시작전 계좌로 입금

서울시가 저소득가구의 명절 위문품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6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설 명절 위문품비로 46억50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로 1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15만1416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약 89억8000만원과 중·고교 교

복비 15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설 명절위문품비 46억5000만원은 가구당 3만원 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 15만5000세대를 돕는 데 쓰인다.  
위문품비는 지급기준일인 지난 1일부터 설 명절까지 신규로 책정된 가구에도 추가 지원된다. 설 연휴 시작 전 세대주에 계좌입금된다.  
위문품비 지원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됐으나, 설 명절 위문

품을 지원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6일 저소득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8800명에게 교복비(동복) 20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교복 지원비는 1인당 30만 원으로, 하복 지원비는 10만 원이다.  
교복비 지원금액은 서울시교육청 교복구입비 기준 공동구매 상한가가 기준이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고 학업능력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 /이범중 기자 joker@

# 해수부 ‘45兆 관상어 시장’... 관련 산업 육성 (세계 기준)

## IoT 등 적용한 사육·관리용품 개발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관상어용품 개발 지원에 나섰다. 4000억원 규모의 관상어 산업을 육성을 위해 사육용품과 관리용품 부문의 업체 두 곳을 선정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 관상어 시장은 약 45조원 규모로 관상어는 강아지·고양이와 함께 3대 애완동물로 사랑받고 있다. 관상어 및 관상어 용품 관련 시장도 매년 7~8%씩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초 '관상어 사육용품'과 '관상어 관리용품' 2개 부문에 대해 각각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육용품 부문 선정 과제는 관상어 수조에 설치하는 기포발생기를 첨단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널리 사용돼 온 기포발생기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엔 새롭게 개발하는 스마트 기포발생기는 최신 기술을 활용



관상어사진. /해양수산부

해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IoT 기술을 활용해 외출시에도 기포 발생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세계 최초로 탑재할 계획이다.  
관리용품 부문에서는 관상어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다 풍부하게 함유하고, 소실률을 줄인 기능성 사료가 선정됐다. 기존에 관상어 사료에 첨가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어분(물고기를 원료로 하는 분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번엔 새롭게 개발하는 사료는 단백질 등 영양 함량이 더 우수하면서도 단가는 낮은 곤충 애벌레를 원료로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ongHyup Bank 3.1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은행




#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스마트하게 활짝 Pim

## 자산관리서비스가 스마트하게 첫 인사드립니다.

  
**자산설계**  
연령별, 상품군별  
효율적 자산 배분

  
**투자설계**  
수익증권과 퇴직연금의  
안정적 투자

  
**연금설계**  
적정연금액과 수령기간,  
질세혜택 안내



[펀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또는 펀드전용상담(1577-3443),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이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상품의 투자는 환율변동 및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등의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NH농협은행퇴직연금홈페이지(<http://pension.nonghyup.com>),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개발부서: WWM연금부



### 세계인이 모여 축제가 펼쳐지는 2018년 대한민국의 꿈도 농업의 꿈도 NH농협이 응원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왼쪽부터)이슬비, 제갈성렬, 조해리 해설위원.



/SBS 전이경 해설위원(왼쪽)과 배기완 캐스터.



/SBS 피겨 스케이팅 박민정(왼쪽)과 김해진 해설위원이 지난 8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조해리·컬링 이슬비·피겨스케이팅 박민정

# 前 국대들의 입담자랑... “보는 재미 더해요”

방송사별 다른 중계 분위기에 관심 베테랑의 시선으로 경기 재미 배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 9일 개막한 가운데, 대회 이틀째인 10일에는 남자 쇼트트랙 임효준이 대한민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SBS, KBS, MBC 등 각 방송사는 하루 동안 예선과 준결승, 결승까지 연이어 치러진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를 생중계로 보여주며, 박진감 넘치는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가운데 3개 방송사의 각기 다른 중계 분위기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쇼트트랙과 피겨 등 한국의 ‘효자종목’을 책임졌던 인기 국가대표, ‘국대요정’으로 불리던 이들이 해설위원으로 등장해 반가움을 더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1500m, 여자 500m, 3000m 등 경기가 치러진 지난 10일에는 조해리 해설위원이 SBS 중계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날 조해리 해설위원은 중계석을 벗어나 현장 리포터로 변신,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관중석을 배경으로 선 조 해설위원은 한국팀의 선전 때마다 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해설위원은 선수시절 잦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썼다. 2011년 세계선수권종합 우승, 2014년 소치올림픽 계주 3000m 우승 등 굵직한 타이틀을 최고령에 따냈다.

SBS의 또 다른 주역도 있다. 배기완 캐스터와 호흡을 맞췄던 전이경 해설위원이다. 두 사람이 진행한 남자 1500m 결승, 여자 쇼트트랙 계주 준결승전 경기 중

계의 시청률은 각각 18.5%, 17.7%(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 MBC(13.8%, 13.6%)와 KBS(16.7%, 16%)를 제치고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전 해설위원은 ‘올림픽 4관왕’에 빛나는 금메달리스트 출신답게 선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내 흥미를 더했다. 또 최민정, 임효준의 기록을 제대로 짚어낸 ‘족집게 예언’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2014년 소치올림픽을 기점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컬링 종목은 이슬비 해설위원이 책임졌다. 이 해설위원은 첫 중계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설명, 과감한 감탄사로 ‘단호박 해설’이란 수식어까지 꿰찼다.

이 해설위원은 트랜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단체전 은메달, 아시아태

평양컬링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금메달, 중국 오픈 금메달 등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은퇴했다.

피겨에서는 ‘피겨요정’ 박민정과 김해진, 진선유와 방상아가 해설위원으로 나섰다.

박민정 해설위원은 KBS에서 스노보드 선수 출신 박재민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13위에 올랐던 박 해설위원은 2015년 은퇴한 뒤 KBS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 해설위원은 현역 시절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냈던 만큼 깔끔한 해설 실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피겨요정’ 김해진은 MBC에서 이재은 캐스터와 호흡을 맞췄다. 김해진 해설위원은 “방송 3시 피겨 중계진 중 가장 젊은 조합”이라며 “가장 최

근까지 빙판 위에서 있었던 만큼 차별화된 최고의 중계방송을 안방에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김 해설위원은 어린 시절부터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로 불리던 인물이다. 만 12세였던 2010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으며, 당시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초등학생 신분이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10대 초반 트리플 5종 점프를 완성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김 해설위원은 2014년 소치올림픽에 출전해 기량을 뽐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다 최근 스케이팅을 벗었다.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베테랑의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보며, 경기를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팽이눈꽃(화약산)

야기 새들의 합창  
그렇게 새봄은 오고...

/고흥곤 작

## “넘어져도 1등” 女쇼트트랙, 대처능력 빛났다

반칙·넘어졌을 경우 등 상황 훈련 넘어진 순간 빠른 대처로 위기 넘겨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세계 최강’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제대로 과시했다. 극한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지난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이 열렸다.

이 경기에서 한국팀의 세 번째 주자로 나선 막내 이유빈(서현고)은 배턴 터치 직전에 넘어졌다. 전체 27바퀴 중 23바퀴가 남았던 상황이었으나, 나머지 선수들과 반 바퀴가량 차이가 벌어지면서 관중석에선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팀은 노련한 경기력과 압도적인 속도로 타 국가 선수들을 차례로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실 쇼트트랙은 변수가 많은 종목이다. 선수들이 레인 구분 없이 한 데 뒤엉켜 자리를 다투기 때문에 반칙으로 인한 실격도 많고 넘어지는 일도 잦다.

혼자만 잘 달린다고 끝이 아니다. 만약 다른 선수로 인해 함께 넘어질 경우, 결승전까지는 구제 받을 수 있지만 결승에선 이조차도 안고 가야 한다. 따라서 넘어지지도, 부딪히지도 않는 게 최선이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중 빙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했다. 심석희는 지난 5일 강릉선수촌에 입촌하면서 계주 연습 상황 등에 대해 “조금 더 극한 상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이유빈(왼쪽)이 지난 1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넘어지자 다음 주자인 최민정이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을 만들어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선수가 반칙을 시도하거나 우리 선수가 넘어질 경우, 또 선수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레이스를 이어갈지에 대해 꼼꼼히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준비한 위기 대처 능력은 이번 준결승에서 빛을 발했다. 첫 주자로 나선 심석희(한국체대)가 스타트를 준비할 때, 세 번째 주자인 이유빈은 바로 뒤에서 준비했다. 만약 스타트 과정에서 넘어질 경우 곧바로 터치해서 이어 달릴 준비를 한 것이다.

이유빈이 넘어진 순간에도 대표팀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상황을 타개했다. 이유빈의 다음 주자인 김예진(한국체대 입학예정)은 일찌감치 안쪽 코스에서 터

치를 기다리며 돌고 있었기 때문에 최민정(성남시청)이 대신 달려왔다.

최민정은 이유빈의 손을 터치한 후 곧바로 질주했고, 빠르게 앞 그룹을 따라잡았다. 11바퀴를 남기고서 최민정은 3위로 올라섰고, 김예진과 심석희가 인코스를 공략해 1위까지 추월에 성공했다.

극한의 상황에서 대표팀은 4분6초387의 올림픽 신기록까지 기록했다. 비록 준결승 2조에서 된 중국이 4분5초315로 기록을 경신하긴 했지만 한 차례 넘어진 상황에서 거둔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김예진은 경기가 끝난 뒤 “그동안 많이 연습했던 상황”이라며 “대표팀은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어 준비했다. 자연스럽게 대처한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서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12일  
음력 : 12월 27일

수도권 날씨  
**-9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25 | 해질 / 18:08

연천 -12/-2  
동두천 -12/-1  
가평 -12/-2  
파주 -14/-2  
서울 -9/-2  
양평 -12/-1  
인천 -7/-2  
수원 -9/-2  
용인 -9/2  
평택 -10/-1

백령도 -6/-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종합]**  
삼성의 훈훈한 설맞이  
물품대금 조기 지급하고  
직거래 장터로 상생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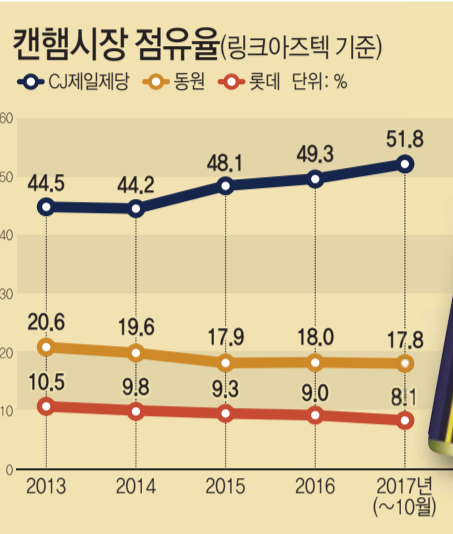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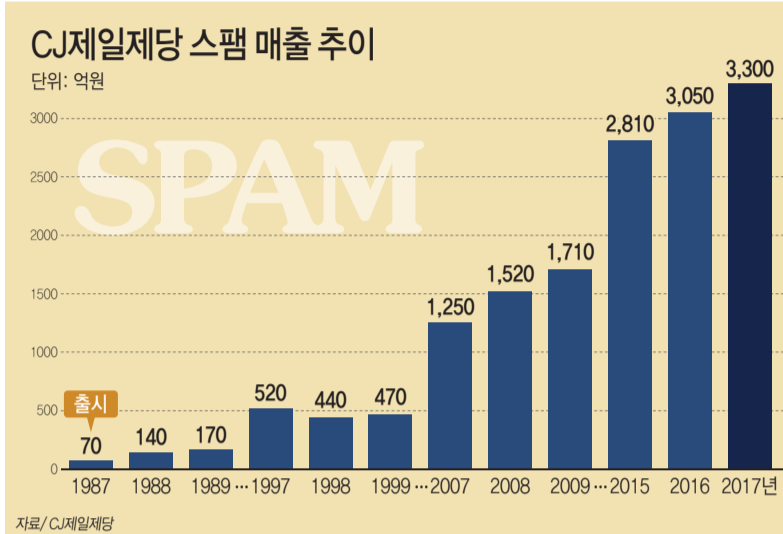


**Life**

**[유통]**  
越 총리 만난 조현준  
“베트남은  
글로벌 전초기지”  
10



# 美軍 식량서 특권층 음식 거쳐 ‘국민 밥 반찬’으로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5 CJ제일제당 ‘스팸’

햇반(즉석밥), 봉고(승합차), 대일밴드(일회용 반창고). 이들은 브랜드 자체가 일반명사처럼 통용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석밥이라는 생소한 카테고리

1987년 국내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스팸은 출시 당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런천미트’와 ‘치즈햄’, ‘장조림햄’ 등을 제치고 캔햄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로까지 불리게 됐다.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을 광고 문구로 앞세운 스팸은 더 이상 미국에서 들어온 저렴한 캔햄이 아닌, 한국인들과 30년 이상 함께 하며 쌀밥과 김치로 대표되는 한국 음식의 인기 반찬으로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 ◆단백질 공급원·전투식량에서 대중으로

스팸은 1937년 미국 호멜(Hormel)에서 처음 출시했다. 햄과 다진 돼지고기를 섞어 캔에 담은 스팸은 대공황의 여파가 남아있던 1930년대 후반 미국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군이 전투식량으로 스팸을 채택하면서 미군이 가는 모든 국가에는 스팸이 자연스럽게 전파됐다. 유럽은 물론 태평양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스팸은 조리와 보관이 쉬운 음식으로 각광을 받았다.

국내에 최초 들어온 시기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당시 스팸은 편리하고 맛있는 돼지고기 특수부위와 같은 존재로 유일한 고기였다. 이 때문에 부유층이나 미군부대와 연줄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았다. 스팸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미군부대 쓰레기통을 뒤져 남은 스팸이나 소시지, 햄버거 고기, 베이컨 등을 모아 식당에 팔 정도였다고 한다. 여기에 김치를 섞어 만든 찌개가 바로 지금의 ‘부대찌개’다.

이후 1986년 3월 제일제당(현재 CJ제일제당)은 호멜과 기술제휴를 체결했고, 1987년 5월 현재의 스팸을 본격 생산했다. ‘세계적인 명성, 세계적인 품질. 스팸을 제일제당이 만듭니다’는 출



CJ제일제당 명절 선물세트 조립현장.



스팸 광고와 스팸튀김.



CJ제일제당 진천 육가공 공장. /CJ제일제당

### 한국전쟁때 미군 통해 처음 들어와 출시 후 30년간 캔햄 고유명사로

### 제품 자체 특장점 알리는데 주력 명절 시즌 고급 선물세트로 인기 뉴욕타임즈서 한국 스팸 보도도

시 광고를 앞세워 반세기 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팸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캔햄이 일반 제품에 비해 고가이기는 했지만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보존 기간이 길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잘 맞아 떨어지며 반응은 좋았다. 덕분에 출시 당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연간 500t의 스팸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듬해인 1988년에는 매출이 두 배로 뛰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 ◆식탁 위의 인기 반찬

스팸이 30년 동안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함께 장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에게 ‘맛있는 밥 반찬’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다. 2002년 배우 김원희를 모델로 한 TV 광고에서 스팸의 정체성과도 같은 ‘따끈한 밥에 스팸 한조각’이라는 광고 카피를 선보인 이후 2006년 가수 예리, 2011년엔 배우 하정우를 모델로 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후 2015년부터는 매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장면을 활용한 푸티지(footage) 광고를 선보였다. 2015년 드라마 ‘미생’과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을 활용한 광고를 선보였고, 2016년에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017년에는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를 활용한 광고를 선보였다. 특히 ‘따끈한 밥에 스팸 한조각’과 함께 ‘스팸이 진리’라는 광고 카피까지 추가하며 스팸이 1위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고를 통해 ‘맛있는 밥 반찬’ 등 제품 자체에 대한 특장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급변하고 있는 트렌드에 발맞춰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스팸을 노출시키기 위해 문화마케팅, 아웃도어마케팅, 스타마케팅 등을 펼쳤다. 제품과 접촉하는 장소와 시점, 매개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제품을 알린다는 취지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문화와 접목한 뮤지컬 ‘스팸어랏’ 연계마케팅을 꼽을 수 있다.

#### ◆명절 대표 선물로 큰 인기

명절 시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고급스러운 선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속형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인식이 더해진 스팸 선물세트는 매년 매출이 성장하며 명절마다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명절 선물 단골 손님인 정육과 과일 등 고가의 선물세트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다. CJ제일제당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0년까지 스팸을 4000억원대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 스팸 마케팅 담당 양성규 과장은 “한국 소비자들의 스팸에 대한 사랑은 해외 언론사에서 취재할 정도로 각별하다”며 “30년 동안 이어져온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위생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4년 초 ‘스팸과 사랑에 빠진 한국’이라는 기사가 뉴욕타임즈 국제판인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즈는 보도된 바 있다. 스팸이 한국에서 명절 선물세트로 각광받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기사였다. 뉴욕타임즈에 앞서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기사를 다뤘다. 이처럼 해외 언론에서 동일한 기사를 앞다퉀 다룬 이유는 한국인의 스팸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스팸의 위상은 남다르다. 특히 명절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고급스러운 선물세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프리미엄 유통채널인 백화점에서도 수입산 와인, 자연산 버섯, 정육세트 등 고가의 선물세트들과 나란히 진열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스팸은 미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싸구려 캔햄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절 시즌에는 세련된 포장에 3만원 대부터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